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순천/광양 황경석



여수 김석철

광양시, 찾아가는 차량등록 서비스 세입증대 역할 톡톡

타 시·도 자동차 저당설정등록 처리로 3년간 12억 원 확보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차량등록 서비스'가 이용객 증가와 더불어 세입증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시는 자동차 등록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하다는 점을 착안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여신금융업체 영업소, 본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2016년부터 타 시·도의 자동차 저당설정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민원인이 직접 방문에 신청했던 저당권설정과 저당권이전등록을 팩스나 카톡, 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받아

처리한 후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특히 타 시·도의 자동차 저당설정 등록을 처리해 거둬들인 세외수입이 서비스 개시해인 2016년 1억1천 만 원을 시작으로 2017년 3억4천 만 원, 2018년 7억3천만 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며, 12억 원 상당의 세외수입을 거두는 효과를 거뒀다.

또 자동차 저당권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지역도 인근 도시에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청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자동차 저당설정등록 시 수수료는 1천만 원 설정 금액을 기준으로

등록세는 0.2%인 2만 원, 광양시 수입증지는 0.4%인 4만 원으로, 이 중 수입증지 대금은 전액 광양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

정성환 차량등록팀장은 "이번 찾아가는 차량등록 서비스가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자동차 저당설정등록 관련 민원 유지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일거양득을 거두며,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지방행정의 우수사례라고 보고 있다"며 "올해에는 10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영광군, 지난해 고소득

농업인 659농가로 늘어

1억 원 이상도 410농가

영광군은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와 수입 농축산물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5천만 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이 659농가로 2017년(329농가) 보다 330농가가 늘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득조사 실시한 결과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323농가로 고소득 농업인의 절반인 49%를 차지했으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249농가로 38%를 2억 원 이상이 87농가로 13%를 차지하였다.

품목별로는 식량작물(벼, 보리)이 459농가(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축산 163농가(25%), 원예특작 35농가(5%), 발달작물(가공 2농가(1%))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02농가(46%)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50대가 245농가(37%), 40대 이하 청년 농업인도 112농가(17%)를 차지했다.

이는 청년창업농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농업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서희권 기자



순천시, 주민자치회 발대식 개최

순천시가 자치분권의 실현! 주민이 주인이 되는 '순천형 직접 민주주의'의 발판 마련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는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순천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책이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 권한 없이 읍면동 자문 역할에 머물렀던 것에 반해, 주민자치회는 행정과 대등한 관계에서 지역의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권한을 갖게 된다.

순천시는 민선7기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그 동안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주민자치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구성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주안·송광·외서·별량·서·황진면 등 6개 읍면동을 공모해 선정하고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로 추진 중인 중앙동, 혁신 읍면동 자체 대상자인 덕연동을 포함한 총 8개 읍면동으로 확대 추진하게 되었다.

허석 순천시장은 "기해년의 첫 시작을 주민자치회 발대식과 함께 하는 것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민의 대표조직이라는 대표성과 책임을 강화한 만큼 적극 지원하여 주민자치회가 직접 민주주의의 중요한 발판으로 정착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장흥군, 동계훈련 축구 스토브리그 열기 '후끈'

따뜻한 기후 여건·친절한 숙식 등 훈련환경 최적



장흥군은 최근 겨울철 전지훈련 시즌을 맞이하여 축구 스토브리그가 한창 진행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10일간은 장흥초, 장흥중, 정남리리조트구장 등 3개소

에서 축구 스토브리그가 열린다.

12일까지 계속되는 스토브리그는 서울 갈현초 등 전국 초등 15개팀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중이다.

대회는 4일부터 11일까지 예선 풀리그를 통해 상위 4개팀을 확정하고,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장흥군은 따뜻한 날씨와 친화적 자연환경 덕에 최적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장흥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갖고 기량을 연마한 팀들이 매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동계훈련 관련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마라톤 국가대표팀 등이 전지훈련을 참가했고, 육상 야구, 탁구 등 다양한 종목의 훈련팀이 장흥을 찾고 있다.

정종순 군수는 "많은 동계훈련팀이 장흥에 머무르는 동안 따뜻한 날씨와 쾌적한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며, "친절하고 깨끗한 훈련환경을 만들어 한 종목의 스포팅을 유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비상체제 본격 돌입

건조특보 발효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조기 운영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건조경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됨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산림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본격적인 산불 비상체제에 조기에 돌입하였다고 밝혔다.

순천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산불상황실을 조기 가동하여 주말 없이 24시간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는 것

특히,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농사철의 시작으로 소각에 의한 산불 위험이 높은 만큼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 농산폐기물 등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통해 산불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발생 시 경제적 피해와 행정적

손실이 큰 만큼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관법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산불예방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본격적인 비상체제 돌입에 대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 기계화진화장비 등에 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하도록 일제점검을 완료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광양시, 2018년 지자체 청렴정책 평가 '최우수 기관'

전국 시 단위 최초 민간단체로부터 선정



광양시가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렴정책 평가'에서 최우수 청렴정책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증서 수여식에서 1913년 도산 안창호선생이 설립한 민족운동 단체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로부터 최우수 기관 인증

패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정책을 제출받아 9개 영역에 대한 실적을 조사해 분석한 자료를 점수화했다.

그동안 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전 공직자들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부서순회 청렴컨설팅,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민관합동 청렴워크숍, 청렴실천 캠페인, 반부패 시스템 운영뿐만 아니라 부패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감찰·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는데 이어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대상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민간단체에서 실시한 이번 청렴정책 평가에서 최고 점수 인증을 받는 등 명실상부한 청렴도시로 우뚝 서고 있다.

김문수 감사담당관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이고, 공직자의 자존심이다"며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모든 공직자가 공정하고 친절한 업무처리로 청렴도 최고 기관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료 운영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